

필승의 혁명신념과 의지로 삶을 빛내인 열혈투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 동지의 한생을 더듬으며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스며있는 이 땅, 투사들의 넋이 꽃핀 이 강산에 한없는 감격과 환희의 파도가 물결친다.

반년전 행사에 특기할 대서변인 수 소란시합의 눈부신 대성공은 조선로 동당 제 7차대회를 향하여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거세한 악동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세기를 주물잡아 힘차게 내달리는 총진군대오에 혁명의 붉은기가 펄펄 휘날린다.

혁명의 붉은기, 성스러운 기발우려러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억세게 버리며 투사가 자랑이 아니라 아들딸들은 과연 몇몇몇만이던가. 그 열혈혁명투사들의 전열에서 세기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형권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혁명가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고 값높은가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당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신념으로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이며 신념을 떠나 참된 애국에 대해 말할수 없다. 만경대거문의 애국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형권동지는 어려서부터 품은 신념을 평생의 소유자이시였다. 지 금도 문득 귀기울이면 김형권동지께서 파발리에서 울리신 동행한 총성의 메아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님의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김형권동지께서 조선혁명군 의 한 소조를 거느리고 조국땅에 진출하신것은 주제 19(1930)년 8월이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소조성원들과 함께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거침없는 난관을 이겨나가시면서 삼수, 풍서, 풍산일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투쟁

방향을 해설선전하여 광범한 인민들 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무장소조원들은 풍산군(당시) 파발리부근의 황수원들목에서 잠시 체재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정거리를 타고 지나가던 악질경관 《오빠씨》순사부장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그들은 1919년부터 풍산지방에서 와서 조선사람들의 손발을 얹어놓고 갖은 행패와 악행을 일삼던 악질경관이었다. 그래서 그 고장 사람들로부러 《오빠씨》라는 별명이 붙여진 높은 주제소 대장실색하여 허둥지둥거렸다.

그러던 어느날 김형권동지께서는 한번 전자의 밀고로 일제경찰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그 변질자로 말하면 한때 우국지사 행세를 하던 독립군관에게도 무용에 있을 때 하루 새벽의 몇달을 두고 더운밤을 해서 상우에 반주까지 놓아 푸짐하게 대접해주시던 강박선언의 은혜를 백발이 되어서도 잊지 않겠노라고 넘볼처럼 우던 늙이였다.

김형권동지를 체포한 일제교형리들은 악착한 고문과 위협공작을 들이대면서 그이를 굴복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고문과 위협공작도 김형권동지의 혁명적지조를 꺾을수 없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체포된 후 얼마 동안 혼전경찰에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그후 함흥감옥에 이송되어 거기서 또다시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으시였다. 하지만 김형권동지께서는 옥중에서도 줄기찬 투쟁을 벌이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보여주는 혁명영화 《누리에 불을 붙이》에서도 볼수 있는것처럼 여기에서는 합동지방방위의 법에서 일제의 최성을 추상같이 단련한 투쟁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외치시였다.

김형권동지와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임을 우렁차게 불렀고 노배가 끝나면 혁명적인 구호를 목청껏 불러 눈물을 질물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목 《새기와 더불어》에서 《삼촌이 이처럼 법에서 단단하게 처신할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였을것이다.》라고 쓰시였다.

혁명승리에 대한 절절한 신념, 바로 이것은 김형권동지의 전생애에 관통되어있는 억년 드느니 않는 혁명적 신조였다.

혁명적신념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절해도 고도 있다 해도 혁명의 승리가 보이지만 신념이 없는 인간은 도덕적이며 헌신적이며 집어던지고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지는 법이다.

함흥재판에서 쓴말을 본 일제는 그 후 서울에서 혁명의 방청자도 없는 비

밀폐관을 벌이고 김형권동지를 10년 이상의 장기수감만을 가두어두는 서울의 마포형무소로 이송하였다.

이 감옥에서도 김형권동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눈물이 증혈을 받은 《정치법》들을 전향시키고 백색할 때 김형권동지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선전을 반대하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군중을 격동시키시였고 수감자들에게 대한 대응시 선투쟁에도 앞장서서 불꽃을 가리지 않고 눈물과 절절히 싸우시였다.

눈물은 전쟁투쟁을 다그치면서 탄압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인들을 내몰았다. 수인들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분격한 김형권동지께서는 살인적인 강제로동을 반대하는 옥내공작수인들의 파업을 지도하시였다. 이 파업에 많은 수인들이 참가하였다.

눈물은 김형권동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감박한 옥내공작을 깨뜨려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외치시였다.

김형권동지와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임을 우렁차게 불렀고 노배가 끝나면 혁명적인 구호를 목청껏 불러 눈물을 질물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목 《새기와 더불어》에서 《삼촌이 이처럼 법에서 단단하게 처신할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였을것이다.》라고 쓰시였다.

혁명승리에 대한 절절한 신념, 바로 이것은 김형권동지의 전생애에 관통되어있는 억년 드느니 않는 혁명적 신조였다.

혁명적신념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절해도 고도 있다 해도 혁명의 승리가 보이지만 신념이 없는 인간은 도덕적이며 헌신적이며 집어던지고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지는 법이다.

함흥재판에서 쓴말을 본 일제는 그 후 서울에서 혁명의 방청자도 없는 비

밀폐관을 벌이고 김형권동지를 10년 이상의 장기수감만을 가두어두는 서울의 마포형무소로 이송하였다.

이 감옥에서도 김형권동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눈물이 증혈을 받은 《정치법》들을 전향시키고 백색할 때 김형권동지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선전을 반대하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군중을 격동시키시였고 수감자들에게 대한 대응시 선투쟁에도 앞장서서 불꽃을 가리지 않고 눈물과 절절히 싸우시였다.

눈물은 전쟁투쟁을 다그치면서 탄압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인들을 내몰았다. 수인들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분격한 김형권동지께서는 살인적인 강제로동을 반대하는 옥내공작수인들의 파업을 지도하시였다. 이 파업에 많은 수인들이 참가하였다.

눈물은 김형권동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감박한 옥내공작을 깨뜨려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외치시였다.

김형권동지와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임을 우렁차게 불렀고 노배가 끝나면 혁명적인 구호를 목청껏 불러 눈물을 질물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목 《새기와 더불어》에서 《삼촌이 이처럼 법에서 단단하게 처신할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였을것이다.》라고 쓰시였다.

혁명승리에 대한 절절한 신념, 바로 이것은 김형권동지의 전생애에 관통되어있는 억년 드느니 않는 혁명적 신조였다.

혁명적신념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절해도 고도 있다 해도 혁명의 승리가 보이지만 신념이 없는 인간은 도덕적이며 헌신적이며 집어던지고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지는 법이다.

함흥재판에서 쓴말을 본 일제는 그 후 서울에서 혁명의 방청자도 없는 비

그이께서는 생명의 마지막순간에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추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때는 먼저 잡았다. 그들을 잡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백성들을 찾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수감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게 심어주시였다.

주제 25(1936)년 1월 12일, 생애가 향하여 불리고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감방에서 그리도 열혈하고 불같은 혁명열로 불췌던 김형권동지의 심장은 고통을 멈추지 않았다.

정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생애는 자기 수명과 그 위업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빛나는 혁명가의 고귀한 생애였다. 주체로부러 몇몇년 마후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을 새겨보시며 《혁명은 끝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할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몇몇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 김형권동지의 한생애에 관통되어 불췌던 이 고귀한 정신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할날 끝까지 가고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의 영원한 진리로 새겨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투쟁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새겨줄 불꽃이였다.

그 신념의 노래, 억척만 죽더라도 변치 않을 신념의 노래가 온 강산에 메아리친다.

...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 당 불꽃따라 끝까지 한길가리 한길 한길가리

글 본사기자 김 일 권

사진 본사기자 리 진 명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오늘날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부른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진로정에 새겨져있는 고귀한 진리이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수명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시키는 사업은 언제나 선차적으로 나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지나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

올해의 투쟁방향에 대하여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던 그이께서는 학습을 강화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항일유격대식 학습열풍으로 들끓게 하여야 합니다.》**

항일유격대식 학습열풍,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파라 백두령에서 주체의 혁명정신을 마련한 나날에 혁명선열들 속에서 높이 발휘된 고귀한 기풍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학습도

전투다!》라는 구호밑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앞대원의 배낭위에 세불린 글을 읽고 전부의 철학에 대해 책을 놓지 않았으며 무담시 학습방법도 활용하면서 자신의 정치리론과 군사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주제 26(1937)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마당구우밀영에서 진행된 동지군정학습에 있는 일이다.

학습에 앞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그해 겨울동안 매 병사, 지휘관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를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대한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학습도 전투다!》, 《혁명하는 사람은 어디서 학습을 첫 배는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들을 병설마다 품직하게 써붙이도록 하시였다.

마당구우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신입대원들은 정치사상학에는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실례를 보고받은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머리리

를 하면서 학습을 게을리하는 신입대원들을 부르시어 학습을 잘하지 않고서는 혁명도 잘할수 없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정치사상학에서 기본문제는 혁명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문제와 혁명적신념문제,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군정 학습기간 정치사상학과 군사사상학을 함께 대원들의 문화수양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으시였다. 출판소에서 학습에 필요한 교재들과 참고사들을 찍어내도록 하시는 한편 신입대원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펼치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입대원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기술이신라고와 심혈을 그 열마인저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군사사상에도 큰 힘을 쏟으시였다. 군사사상에서 기본은 유격대법들이 종합되어있는 《유격대동적》과 《유격대사상》을 완결시켜 정통하게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

행된 마당구우 밀영에서의 군정학습은 매 병사, 지휘관들의 정치군사적지향과 정신도덕적품도를 높이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런 학습열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하였다고 그 나날에 정치사상 및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조국해방의 백사적위업수행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항일유격대식 학습열풍은 오늘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되겠다. 백두산영웅천년발전건설자랑자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의 희생을 학습하고 그에 비해 자신을 단련해가면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세상이 없는 영웅천년화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은 항일유격대식 학습열풍의 비상한 생활력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백두밀영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 학습열풍은 오늘날 또 한번의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투쟁하는 우리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청년전위들의 총정의 이어달리기대렬

남포시 통과, 혁명의 수도 평양 도착

청년영웅이 될 남포시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맹세가 표명되었다. 이어달리기대렬정원들은 국사봉혁명전적지, 청산리혁명사적원을 참관하고 강사구역 생산협동농장, 남포항, 대안천선유리공장 남포유리그릇공공장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의 자욱이 뜨겁게 아여있는 자락을 돌아보면서 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젊은이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세득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 드린 총정의 로력적신념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대안천기대열합기공소, 천리마제강연합기공소, 강사구역 공장 등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반만년전 투사에 특기할 주체조선의 첫 수 소란시합의 성공소식을 접하여 새해의 총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투쟁모습을 뜨겁게 목격하였다.

이어달리기대렬정원들은 현지에서 있었던 경제선봉으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한껏 북돋아 주었다.

청년기간 그들은 청년로력적 신자축하모임, 유년모임, 시, 노 배모임 등 다양한 정치문화사업도 진행하였다.

남포시를 거니는 청년전위들의 총정의 이어달리기대렬이 1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만경대구역 대령동에서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위원, 차희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관계군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이어달리기대렬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붉은기를 넘겨받은 평양시청년전위들의 총정의 이어달리기대렬은 조국을 떠나는 억년 기풍으로 더욱 든든히 준비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으며 기세등등히 행진군을 다그쳤다.

그들은 당의 건설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여 건설의 대대열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국무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 선사람같이 떨쳐나 도반의 모든 산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도시와 농촌, 일리와 마을들을 아름답게 꾸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정당령을 뼈백이 사가 땅속에서 이어 도망위대한 시 실영일, 조선인민군정령령문, 도청년정원회의 위원장 한인철, 국가파학원 합동부원 원장 장길영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첫 수 소란시합의 완전성공으로 미지의 역외원정공감소통은 물결처럼 되고 우리 공화국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주체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고 궁지에 넘겨 버렸다. 그들은 오늘 기풍을 심장에 새기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쳐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전철, 선철,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이 총진군에 앞장서서 힘차게 내달리고 나선과 축산, 수산과 경영일부문을 힘차게 앞장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 안고 필승의 신념과 광안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은 첫 수 소란시합의 완전성공이라는 민족사적인 특대사변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진군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하여 새기를 주물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우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의를 안고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시키나간다면 무에 어떤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진시키며 대비향, 대학신을 일으킬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신년사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말아들던데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추켜들고나가고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수호전선의 제 1순위로 자란으로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

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눈부신 과학기술선과 강성국가건설을 떠밀어나가며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 기수가 되고 청년들은 조국을 떠받드는 역년 기풍,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특히 일꾼들이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 혁명의 유능한 지휘관이 될데 대한 사상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우리 일꾼들이 어떤 인성관을 지니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힌 고귀한 지침이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이 우리가 힘겨운 투쟁전투에서 기적이다. 당의 혁명적령도가 있고 당과 사상도 결국에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며 새 기풍, 새 기풍을 창조해나가는 천만군민이 애국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기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에서 승리의 포성은 더욱 힘있게 울려져지게 될것이다.

다다음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래와 대동무로 적극 살려나가는것이다.

집단의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와 위훈을 창조하는데 우리 사회의 본래가 있고 약동하는 기상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집산주의위업이라는데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국가적리, 당과 혁명의 리의를 우선시 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지난해에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된 눈부신 기적과 비약은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보여주는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단결된 힘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집단적 열풍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 단결된 열의의 창조물들과 이르는 세계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이 수 많이 일어났다. 집단주의위업을 최대로 발휘시키자면 매 우리 조국의 분과 초는 강성국가로 이어지게 되고 1천을 10년 맞잡기로 비약하여 전진하는 신군조선의 기상이 더욱 힘있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 강령적위업을 높이 들고나가는것이다. 자강력은 자기소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자강력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 자기 힘으로 발전할수 있다. 자강력을 떠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본래도 고수할수 없고 강성국가로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이며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것과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의 이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여기에는 빈리우에서 강변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자강력의 력사와 신념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상들을 뼈에 새기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으로 뜻있게 맞이하여 할것이다.

윤 철 희

1 면에서 계속

그들은 우리의 첫 수 소란시합의 완전성공을 놓고 세계각각에서 떨쳐나오는 부름들과 놀라운, 격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천만군민은 현대정치적의 거장, 회색의 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코라근공지와 무상의 행운으로 가슴설레이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인민군정당령과 도안의 전철시인들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실현한 국방부문의 영웅들처럼 당중앙과 사상도 승결과 발걸음도 함께 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김책철원합기공소와 무산광산전력합기공소, 서수소발전소와 온성지구만원합기공소를 비롯한 도안의 선형공업부문의 생산공정의 주체,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생산을 높이며 농산물, 축산, 수산부문을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성전총합기공장을 비롯한 각종공업장소에서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고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산품을 더 많이 내놓으며 주요건설대상물 건설의 수준에서 최대로 속도로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지적공을 확립

하여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피끓는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전투장마에서 청춘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칠으로써 청년강국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민연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을 태종수 도당위원장 책임비서가 땅속에서 이어 도망위대한 시 실영일, 조선인민군정령령문, 도청년정원회의 위원장 한인철, 국가파학원 합동부원 원장 장길영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첫 수 소란시합의 완전성공으로 미지의 역외원정공감소통은 물결처럼 되고 우리 공화국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주체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고 궁지에 넘겨 버렸다. 그들은 오늘 기풍을 심장에 새기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쳐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전철, 선철,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이 총진군에 앞장서서 힘차게 내달리고 나선과 축산, 수산과 경영일부문을 힘차게 앞장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들은 당의 건설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여 건설의 대대열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국무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 선사람같이 떨쳐나 도반의 모든 산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도시와 농촌, 일리와 마을들을 아름답게 꾸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정당령을 뼈백이 사가 땅속에서 이어 도망위대한 시 실영일, 조선인민군정령령문, 도청년정원회의 위원장 한인철, 국가파학원 합동부원 원장 장길영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첫 수 소란시합의 완전성공으로 미지의 역외원정공감소통은 물결처럼 되고 우리 공화국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주체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고 궁지에 넘겨 버렸다. 그들은 오늘 기풍을 심장에 새기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쳐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전철, 선철,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이 총진군에 앞장서서 힘차게 내달리고 나선과 축산, 수산과 경영일부문을 힘차게 앞장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후승리를 위한 길에서 발휘되는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

우리는 3대 혁명기수들이다

원산통신케블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우리는 3대 혁명기수들이다! 이런 긍지를 안고 원산통신케블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의 진군경에서 큰 자욱을 내걸었다. 한해가 다 저물어간 지난해말 2중3대혁명붉은기관정을 밝은 이틀이었다. 서로 돕고 이끌어 공장에 대한 애착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을 두터이 한 이들의 새해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발같이 열쳐나오라 합니다.》

첫 전투가 시작되면 며칠전 아침, 신들음을 조여매고 일찍 출근하여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는 지배인 김진하동주의 뇌리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즐거워지고 있었다.

당 제 7차대회에 우리 공장은 어떤 로력적전물을 드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어가며 연신작업반까지에 다달았던 그의 귀에 어떤 특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장에 들어서니 4.15기술

혁신돌격대 대장인 리봉화동무와 연신작업반장 김철중동무를 비롯한 여러 종업원들이 하나의 낮은 설비를 빙 둘러싸고 열연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수고를 합니다. 원래 이 지배인도 모는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만.》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그제야 지배인을 띄어본 사람들이 가운데서 리봉화동무가 신참 다가왔다.

《실은 연신작업반원동무들과 가능성을 좀더 의논해보고 지배인동지를 찾아가려했는데...》

이러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장되어있던 설비를 살려 종합연신기틀 만들어볼 궁상을 하고있던 참이었다.

《종합연신기?!...》

키가 반쯤 열리는 그 말을 나직이 외우는 지배인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얼마나 미더운 동무들인가. 이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내겠는가!》

불현듯 두해전의 추억이 가슴 뿌듯한 정회속에 떠올라왔다.

빛섬유케블생산선을 위한 설비개조!

정국적으로 날로 수요가 높아 가는 빛섬유케블생산선을 스스로 걸머지고 걸음걸음 난관을 헤쳐

나간던 나날의 민담사연이 이 한 마디 부름속에 다 담겨져있었다.

...

새로 개조한 빛섬유케블생산선의 흐름식공정을 수신했던 눈빛들이 긴장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눈썹은 심장의 박동마냥 불규칙적인 소음을 내는 설비들, 종업원들의 막심한 눈빛이 지배인에게로 모아졌다. 지배인의 피로한 마음속에서 불같은 한숨이 새어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지배인동지, 저길 좀 보십시오!》

작업반장 오영철동주의 목소리에 일시에 모아지는 눈빛들이 한곳으로 쏠렸다.

손에 불대를 두들기 같은 리봉화동무가 케블작업반현장에 들어서는데...

《?!...》

며칠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그가 아닌가. 개조한 설비시운전이 격정되어 나갔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배인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지배인동지, 저야 공장의 선두마차를 끌어야 할 4.15기술 혁신돌격대 대장이 아닙니까.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부락입니다!》

...

그때 숲불마냥 이글거리는 그의 어둡고글한 눈빛은 방금전 종합연신기공제로 열린 본의를 불리던 그 순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어제 그뿐이었던가?

불치의 병으로 쇠고하는 몸이지만 자기 자리가 열마 남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침착하며 빛섬유케블생산설비개조와 시험생산선투에 헌신하다가 순직한 케블작업반 로동자였던 윤파철동무의 모습은 오늘도 지배인만이 아닌 공장종업원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각인되어있다.

정장수, 권오환, 오영철, 김국철, 윤영준, 로득철, 윤성준, 리동국, 오영준...

우리를 일을 잘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공장으로만 들고와 낮과 밤을 이어가며 생산활동장을 위해 지혜와 힘과 마음을 바치고 합치던 고마운 사람들, 그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공장은 마침내 활력을 되찾고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배인동지, 저야 공장의 선두마차를 끌어야 할 4.15기술 혁신돌격대 대장이 아닙니까.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식도 마다하고 작업현장에 나섰던 박경일동무의 모습도 더 들어왔다.

《그러나 편신장기를 한공정 뛰여넘는다 그 말이...?》

《케블작업반 막방이도 인차 로동자발명가가 될수 있었어.》

지배인의 한사에 되달리게 올린 그의 목소리.

《지배인동지, 저도 당당한 3대혁명기수입니다.》

그때 나어린 케블공의 모습이 얼마나 의젓하고 크게 돋보였었다.

《그렇다. 우리 공장종업원들 모두가 창조적 기수, 3대혁명기수들이야. 그들의 가슴에 이제 머지 않아 또 하나의 3대혁명붉은기훈장이 번쩍일 때 인아를 혁신과 위훈의 성파는 또 얼마나 눈부실것인가!》

《파스한 태양이 비추는 현장들마다에서 마침내 우람한 동음이 울려나왔다. 그 약동하는 승결에 보복을 맞추어, 새해에도 사상, 기술, 문화의 세족의 붉은기를 더욱 세차게 휘날려갈 맹세를 안고 성령삼광 큰 자욱을 적어가는 지배인 김진하동주의 가슴속에서는 그만인 아닌 온 공장으로동계급의 심장에서 끓는 열정이 터져나왔다.》

우리는 3대혁명기수들이다! **본사기자**

정남, 우리 엘더, 나의 공장

《화임!》

지배인의 힘찬 구령에 따라 로동자들이 소성으로 된 연기가 타매쳐 울었다. 그 광경을 호호한 눈길로 바라보며 단원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일제히 환성을 올렸다.

새해의 진군경에서 단원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떠난 송리의 환호성, 그것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힘과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으로 돌파를 열며 혁신의 한걸음에 걸음은 더디지만 로동자들이 줄곧 애있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부름이라 하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뚫어주는 기적의 열정입니다.》

힘겹게 걷는 길이 더 보람차다는 말이 있다.

지난해 12월 단원세멘트공장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종전같은 무탈은 실패할까 한다면 설비보수를 한달

도 못되는 사이에 해져야 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시인의 건설장들에서는 세멘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지배인으로부터 로동자들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설비보수를 앞당겨 끝낼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머리를 썼다.

관일을 앞에 놓고 지배인 문회권동무는 누구보다 걱정이 많았지만 그보다 신심이 넘쳐났다. 지난 기간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공장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으로 돌파를 열며 혁신의 한걸음에 걸음은 더디지만 로동자들이 줄곧 애있었던 것이다.

《우리 동무들이 어떤 대단한 착상을 했는가 좀 보십시오. 대충 계산해보았는데 월것 같습다.》

지금은 공정법에 따라 차례로 보수하던것을 립체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마방기, 분쇄기와 같은 덩치큰 대장들을 생형시키고 세부공정들은 정점을 하는 식으로 하는 책임기사의 설명을 들던 지배인의 입이 대변에 벌어졌다.

그는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이런 참된 주인들이 승

죽었던 공장을 일떠세웠고 수십건의 창고고안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하였으며 작아도 큰 일을 하는 공장으로 소문나게 하지 않았었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설비보수투에 달려들었다. 공장은 불도가 너무나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지배인은 설비보수에서 제기되는 자체보장을 위해 한밤중에 도면집을 펴고 초급당일군은 화산식정처리사업으로 로동자들의 심장에 투쟁의 불을 지펴주며 현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공무작업반 반장 김철중동무가 원로마방기대리차를 맞추며 밤을 달음쳐온 미더운 로동자들이 줄곧 애있었던 것이다.

이런 노력은 창조적열의와 투쟁기공속에 단원세멘트공장에서 계속된 달자로 설비보수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났고 소성로에 불을 지피었던 것이다.

기운차게 돌아가는 기대들의 혼란한 동음을 들는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정든 우리 일터, 나의 공장! 이런 애국의 마음이 그들모두를 공장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한 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용해공의 궁지

황해철련합기업소 강철직장 로장 립영철동무의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가정들이 많고 그 가정들은 세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끝없는 총애감들이 늘어나는 것이 곤근가정의 기쁨이고 나라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재우는 것이 농장진가정의 기쁨이라던 괴물을 뽑는 용해공가정의 기쁨과 행복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명업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양력설명전부위로 즐거운 새해의 두번째 날에 우리는 황해철련합기업소 강철직장 100초고전력전기로 로장 립영철동무네 가정을 찾았다.

방안에서는 집안가족들이 모여 앉아 명절음식을 하고있었는데 분위기가 유달리 흥겨워있었다.

《이렇게 양력설명전도 즐겁지만 전기로에서 새해 첫 출장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니 얼마나 기쁘게 모셨습니까.》

안주인인 박금실동무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하는 말이다.

《알고보니 그분부부는 황철에

숙결도 하나, 보폭도 하나

첫 결

현장은 취주악소리로 들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대인종이제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격동적인 현장 곳곳에 나불은 글발들이 렬력히 어거웠었다. 기대공과 보수공이 따로 없고 공과가 따로 없는 전부이다. 그들속에 일꾼들도 있다. 그러나 쉽게 그들을 찾을수는 없다.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설음식들을 안고, 작업장장이며 공구들이 안고나온 그날음으로 현장에 몸을 꼭 잠근 일군들이다.

그때는 이렇게 새해 첫 전투를 시작하였다.

이곳 일군들뿐이 아니다.

우사고증송의 기적소리

철도사령원들은 항상 드바쁘다. 정초에 만났던 평양기관차대 운전대대 사령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내년 604호 목척지까지 무사고증송 보장!

내년 213호 자전소운전으로 1079의 집 더 수송하여 강철생산에 기여!

각 기관차승무자들의 실적을 보고받느라 여념이 없던 사령원 리진동무는 전화속에서 혁신의 소식을 연해연한 날아들었다.

백암과 두만강까지, 대규모체 철거지, 동해기구의 단련과 문

단원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리는 단 하나-무사고증송이다. 5월의 대추협동농장 위해 기세충천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기관차승무자들의 맹세도 숙결도 화전적처럼.

본사기자 김치곤

위훈의 밑거름

1월 초 어느날 밤 신의주신발공장 주두 및 운동신발공장의 기대공들은 퇴근준비를 서둘렀다.

그때 작업장 한쪽구석에서 눈을 밝히거나 불비한 개소를 찾아 빠짐없이 고쳐나가고있었다.

지난해말 벗어섰던 수신패 설비들을 새것처럼 되살렸으며 오날도 직장의 생산성파를 위해 전심을 바치는 최현철동무였다.

새해 첫 전투의 혁신자로, 존마치너로 떠받들려오는 수많은 기대공들의 높은 영예속에는 그의 말없는 헌신이 고여있었다.

특독-

마치소리는 쉬임없이 울렸다. 그의 이마에 구슬같은 땀방울이 반짝였다.

이 작업장에서 최현철동무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28번째 새해를 맞았다.

본사기자 허명숙

마식령의 불빛을 지켜 부른 신념의 노래

무엇이 어려운 때 부르는 노래는 그 사랑의 진가를 나타내는 시금치라고 한다.

하리만경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격으로 깎여나가는 삶의 메아리를 이 땅에 남길수 있는것인가.

어기에 이 불을 대담을 주고 간 한 인간의 고결한 발자취가 있다.

그가 바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지겨, 마식령스키장의 불빛을 지켜 한몸을 바친 강원도송배전부 전력설비운영과 부원이었던 주성일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걸음씩은 사랑,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적열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뜻밖에 마식령스키장의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주성일동무가 같은 부서의 지령원인형수동무와 함께 마식령스키장으로 뺨은 송전선로를 살피며 로인제명기구에 이른것은 그날날 12시경이었다.

기수를 부리는 눈보라와 며칠째 내리쬐는 폭설로 하여 로인제명은 말뚝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한시바베 사고의 원인을 해명하여 마식령스키장에 전

강원도송배전부 전력설비운영과 부원이었던 주성일동무에 대한 이야기

생생했었다.

기승지는 눈보라속에서 거의 8시간, 이제는 맥이 진했다.

철막이 있는 램바루까지는 아직도 10여킬로, 1km를 전진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니 이런 속도로 간다면 과연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는가. ...

형수동무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듯 주성일동무는 잠시 쉬어가자며 씩은 손으로 램바루를 쥐어주었다.

한동안 숨을 돌리고자하던 한 이가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은연중에 할일부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로 야병의 후한속에서 작업반투지의 인형을 목숨바쳐 검사보위한 한용권중대장과 유격대원들에 대한 이야기, 41년도바람을 이겨내지 못했던 5리후의 주수로 전직된 배신자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이야기...

한형수동무는 말할 기운조차 없던 그 시각에 주성일동무가 무엇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것인지 모지 않았다.

그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팔마리정신으로 얼룩진 시련을 맞받아왔고 많은 입무를 풀까 지 수행해나가는 한당원의 뜨거운 당부라고 동시에 자기자신의 심수에 안긴 의지의 회초리였다.

사실 주성일동무는 위망로 늘 않는 몸이어서 그날 점심도 거의나 굶다시피 했다.

말뚝한 통지들을 구원하다가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에서

명령 열구였다.

하지만 농업근로자들의 이마에 서는 땀이 마음속없이 흘렀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열리는 올해 인민생활문제를 위한가치 국사기운에 제일 승고한 뜻을 받들고 펼쳐나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기로 하여 포진되던 혁신의 기세가 새해에 넘쳐나고 있다.

겨울설이내기를 다치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기과다에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졌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당의 구호가 곳곳에 나불고 붉은 기발들이 펠벌 휘날리는 협동농 이더에서나 혁신의 불바람이 새차게 타번로 생산.

6일에는 하루동안에만도 전날보다 1000여의 거름을 더 실어냈다.

전해에는 대비악, 대학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협동농을 진감하고 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 1선참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포진되다에 거름을 그득히 실고 달리는 트랙터, 소말구지들의 행렬, 저기들의 밭갈이가 더더어지는것만 같아 거름을 지고 승배너고 달리는 농업근로자들 ...

한겨울의 강추위는 이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온 대지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새해축전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련 일군들의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주제 105(2016)년 력사적인 신년사와 새해축전에 제시된 과업을 모든 힘 다하여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한 총련일군들의 모임이 9일 도청에 있는 조선외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상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상상이 모셔져 있었다.

《역사의 분수령인 뜻깊은 올해를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5대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일대 전격의 해로 하자!》, 《중등교육실시 70돐과 조선대학교양실 60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전조직과 전체 동료들이 떨쳐 일어나 민족교육을 자랑하고 고수하며 더욱 발전시켜야!》라는 구호들이 모임장소에 나붙어 있었다.

모임에는 최룡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남승우부의장, 배이주부부장, 배진주부부장, 강사부총장, 박구부총장, 강사부총장 겸 제일본조선민주주의적통일전선위원회의원장, 홍인홍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 국장들, 제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 총련본부, 지부위원장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장에게 보내주신 새해축전어 말씀이 낭독되었다.

최룡화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주제조선의 첫 수석탄신시 완전공하여 민족의

총련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령도에 의해 조국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멀지 않은 앞날에 자주족국이 실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는 내외반동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거침없이 자주주권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대업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올해에도 새해 첫 아침에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새해축전을 보내주시어 총련이 나아가 갈 앞길을 활짝 밝혀주시었으며 우리의 건강과 모든 동포가족의 행복을 축원해주신다는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새해축전에 담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신년사의 요점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총련의 위용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생사명을 같이하는 불멸의 대오,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로 팔방면의 총련들속에 깊이 뿌리내려 제일조선인운동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것은 총련의 자랑거리라고 하였다.

전조직이 새 생기기 애국애국모범장조운동을 즐기며 벌려 총련분노대기 2차대회)를 통하여 자연 새 세대에 이어

주제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하여야 하고, 이 일심단결을 전하여 지대본으로 이루어지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으로 조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이다.

지부들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성품으로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지부정당과 동포들 자신이 주인이 되는 대중운동을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벌일것이다.

전조직이 새 생기기 애국애국모범장조운동을 즐기며 벌려 총련분노대기 2차대회)를 통하여 자연 새 세대에 이어

주제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하여야 하고, 이 일심단결을 전하여 지대본으로 이루어지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으로 조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이다.

지부들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성품으로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지부정당과 동포들 자신이 주인이 되는 대중운동을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벌일것이다.

전조직이 새 생기기 애국애국모범장조운동을 즐기며 벌려 총련분노대기 2차대회)를 통하여 자연 새 세대에 이어

주제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하여야 하고, 이 일심단결을 전하여 지대본으로 이루어지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으로 조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이다.

지부들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성품으로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지부정당과 동포들 자신이 주인이 되는 대중운동을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벌일것이다.

전조직이 새 생기기 애국애국모범장조운동을 즐기며 벌려 총련분노대기 2차대회)를 통하여 자연 새 세대에 이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를 커다란 격중속에 받아안고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4일 담화를 발표하여 자주통일운동에 적극 기여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접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올해의 통일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불타는 결의에 찬양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현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명철한 해명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들고나갈 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구조와 과업, 방도들을 활짝 밝혀 주시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지난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업을 활짝 열어나가기 위하여 통일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불타는 결의에 찬양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현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명철한 해명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들고나갈 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구조와 과업, 방도들을 활짝 밝혀 주시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지난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업을 활짝 열어나가기 위하여 통일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불타는 결의에 찬양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현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명철한 해명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들고나갈 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구조와 과업, 방도들을 활짝 밝혀 주시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지난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업을 활짝 열어나가기 위하여 통일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불타는 결의에 찬양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현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명철한 해명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들고나갈 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구조와 과업, 방도들을 활짝 밝혀 주시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또다시 드러난 《북조선위협》론의 기만성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열심히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있다는 것만 관련하여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은 2017년에 이 전이 완료되는 남조선의 평행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기지, 대규모 해외군사기지로 될 전망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리유는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로씨야전문가 가 《미국이 결코 북조선의 위협증대 때문에 남조선에 확장을 할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정경들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북조선위협》론은 저들의 군사력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한 사실을 전하였다.

애국주의와 단합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아프리카나 국가수반들 신년사에서 강조

아프리카나 국가수반들이 새해 2016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공과대통령 데니 싸우 누제소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단합을 높이기 위하여 애국주의와 단합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나 국가수반들이 새해 2016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공과대통령 데니 싸우 누제소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단합을 높이기 위하여 애국주의와 단합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나 국가수반들이 새해 2016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공과대통령 데니 싸우 누제소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단합을 높이기 위하여 애국주의와 단합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나 국가수반들이 새해 2016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공과대통령 데니 싸우 누제소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단합을 높이기 위하여 애국주의와 단합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최근 나라의 한 사회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총기류범죄로 인한 사망자수가 1만 3286명으로서 그 건수는 이미 711명 늘어났다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총기류범죄가 합법화되고 온갖 범죄가 만연하는 미국의 사회체제가 만든 필연적 결과물이다. 한편 로씨야의 한 텔레비전방송이 6일 미국의 전경서기 사망자들과 경찰서기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를 대비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방송은 미국에서 이 기록된 남북전쟁과 미국에 2차 세계대전 등 수많은 전쟁에서 죽은 미국인수는 모두 120만명이지만 평화시기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는 140만명으로서 전쟁시기 사망자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러한 수치를 통해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그 어디에도 비추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경고하였다.

교육 발전에 힘을 넣어

교육 발전에 힘을 넣어

교육 발전에 힘을 넣어

전염병 교해

전염병 교해

전염병 교해